

제 157 호

대림 제 1주일

1975. 11. 30.

숲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②3498)

□강 론□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소서」



김 동 준 신부

오늘 대림 제1주는 교회 월력으로는 정월 초하루에 해당한다. 뜻깊은 오늘 교회 전례기도는 "주여 어서 오소서(마라나-타 고린토전서 16장22)의 기도로 시작한다. 예수 성탄을 앞두고 4주간을 교회는 대림절로 정하고「기다림」의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생각해 한다. 이4주간은 특별히 구약에서 4천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케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방탕과 방황, 고통과 회심의 역사를 더듬어, 자신의 역사를 그리스도 주님안에서 새롭게 정립시키는 데 뜻을 두고있다. 대림절 동안의 모든 미사 독서가 구약에서 인용되고 있음을 주지할 일이다.

때문에 단순히 대림절 동안 탄생하시는 예수아기를 영접하고 우리네의 축제를 준비하는데 목적을 둔다면 우리의 소극적 신앙은 교회의 본래의 뜻을 반감시키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오늘 미사의 제1독서인 이사야서는 「구속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탄원이 메아리치고 있으며 오늘 복음에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정의의 심판자」로써 당신의 결정적 재림을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피조물은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지만" (로마 8장22) 그리스도의 재림이 결정적으로 도래할 때까지는 영원히 접목하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묵시21장1)이 시작될 것이다.

대림절 동안의 모든 전례는 화려함을 피하고 회생과 기도와 회심을 요구한다. 대림절은 영원과 시간을 대비시키며 영원에 대한 갈망과 향수로 채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시간과 영원안에 살아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 사람임과 동시에 영원으로 순례하는 자라는 사실을 대림절 동안에 깊이 마음에 새겨 그러한 생활태도를 가지도록 촉구한다.

성체는 이 순례자의 생명의 양식이다. 구약과 신약을 마무리 하는 묵시록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며 요한은 "주여 어서 오소서" (묵시록 22장20)의 기도로 극적인 막을 내린다.

-이번 성탄절에도 남의 떡이 제사를 지내려는가? 자신이 「싼타-크로스」가 되기보다도 「싼타-크로스」가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려는가?

오 마라나타! "이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에" (필립비 2장15) 오 마라나타!

<중앙성당 보좌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가톨릭기도서 p 206

(1) 개회식

□**입당송**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뵈나이다. 내 하나님께 굳이 바라오니, 이바람을 헛되이 마시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두고 좋아라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자는 부끄러울리 없으리이다.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이사야 63 : 16b-17 64 : 1, 3b-8)

하늘을 뚫고 내려오소서.

□**창세기** 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도로주시고, 부드러운 얼굴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당장 살아나리이다.

이스라엘의 목자시여/캐루범 위에 좌정하시는 님이여/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권능을 떨치시며/우리를 구원 하러 오시옵소서. ②

□**제2독서** (고린토 전서 1 : 3-9, 성서 p 371)

주님이 오실날을 기다리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13 : 33-37 성서 p 111)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신자들의 기도

1. 전능하신 천주여! 당신 자녀들의 뜻을 굳게 하시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착한 행위로 맞이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하늘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하소서. 주여,

2. 영원하신 주 천주여, 신자들로 하여금 대림절의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하시며/현세의 고통을 참고/인내하는 신앙을 허락하시어/당신의 자녀로써 증거된 생활을 행수 있도록 은총 주소서. 주여,

3. 위령성원을 마치면서/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우리의 친구를 들으시어/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주여,

(3) 성찬의 전례 □불현 □성찬식

□**영성체송** 주께서 행복을 내려주시면 우리 땅은 열매를 맺어주리라.

숲정이 산책



— 숲정이 참관 3 주년 —
아직 어려서 미숙한 점이 많이...

(2) 숭정 이

주여 어서 오소서!

—대림절을 이렇게—

오히려 우리 이웃 사람들이 당하는 빈민과 곤궁 때문에 그들에게 기쁨을 알게 하고 기쁨의 노래를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과 갖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을 깊이 동정합니다. 특별히 이런 곤궁중에 대처할 수단도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는 이들, 인간적 희망이 모두 사라진 이들을 엄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기도와 애정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박탈당한 많은 이들이 행복을 되찾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救助)와 복지(福祉), 안정(安定)과 정의(正義)를 보장받도록 합심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웃사랑 없이 기쁨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합니다.

—교황 바오로 6세(크리스찬의 기쁨에서)

◎의산농장 나환자촌 공소짓기◎

울드레야 현금 49,400원
 금산 박 정숙 10,000원
 이라 익 명 2,000원
 계 금반지 1집, 현금 1,196,300원

지난 주일 울드레야에 참석한 전주교구 푸리실리스타 62명은 주교님 집전의 특별미사 현금과 이복석(前 중앙사도회장)형제와 이관형(전주지법 판사)형제의 특별성금 각 1만원씩을 모아 49,400원의 성금을 나환자촌 공소짓기 사업에 보태도록 하였다.

◎ 생일없는 어머니 ◎

군산 둔율동 본당 사도회 임원 한분은 지난 23일까지 부인 생일을 맞아 잔치 대신 군산시 구암동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이불 10개와 쌀 한가마니를 손수 등에 지고 가서 나누어 주었다. 향구의 차디찬 바람이 크리스찬의 사랑으로 녹아 버렸다.

〈註〉 당신은 무슨 선물로 성탄하시는 아기에수를 맞을 것인가?

싸늘하게 식은 대지를 녹이는 훈훈한 이야기꺼리들이 아랫목처럼 그리워지는 대림절이다.

□ 숭정이 황간 3주년 □



축하합니다

이 병 희

1972년 12월 3일 대림 1주

이 날은 바로 「숭정이」가 신자들에게 얼굴을 보인 날이며 지금까지 「주님의 날」이던 언제나 우리를 찾아주는 정다운 벗이 되어왔습니다.

75년이 저물어가는 즈음— 대림 1주가 시작되는—오늘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애타게, 꼭 다르게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끌고 바르게, 그리고 비워진 자리의 구석을 메꾸어야 하는 고대, 희망, 기쁨의 시기입니다. 이 애타게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오늘 우리 교구주보 「숭정이」가 생일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 3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번주에는 어떤 새로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속에 잉크 냄새 물씬 풍기는 숭정이를 펴 봅니다.

장론에 있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생활목표와 크리스찬적인 자세 제시, 양지쪽에서의 만남, 특히나 숭정이의 산책과 요십이의 시사성은 우리의 생활을 풍차치기에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4면에 있어서의 교구내의 이모저모의 소식과 이 본당 처 본당의 한주간의 행사는 본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간호로 시작하여 차곡차곡 메어 놓은 숭정이를 볼 때마다 우리 교구의 발전사를 보는 것만 같아 정말 흐뭇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이와같이 전주교구내의 움직임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교우들의 교리지식, 정보교환, 신앙심등 메시지를 통한 선교활동의 사명을 숭정이는 다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교구의 유일한 홍보수단인 숭정이를 위해 힘쓰시는 모든 분들께 신자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신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느곳이나 찾아주는 숭정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의 나눔으로 하느님 나라 건설에 하나의 지체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계속 우리 신자들을 위하여 알차고 풍성한 주옥같은 알알들로 힘써 주실것을 열치 불구하고 청하오며 숭정이를 위해 힘써 주신 분들께 주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전주 교구 교리교사 연합회장〉

삼성 T.V 대리점

삼성전주센타

T.V, 냉장고, 전기용품 일체

박영옥(누시아)

전주극장입구 전화 ③ 5893

서울 인류기술자 초빙 개업

A원양복점

교우 여러분에게는 인하 봉사

정읍 군청에서 성림극장 쪽으로

전화 998

황재평 (베드루)

흑백칼라, DP.E, 고급 인상

현대 사진관

주 김요한(낙준)

김테레사

전화 ③ 2589

주소; 고사동 2가 역전오거리

□ 양 지 쪽 □



하느님 과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여—

김 영 구 신부

우리는 모두 이해성 있고 사려깊고 동정심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하느님은 이점에 있어서 참으로 탁월하시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점과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심지어 그의 중들이 심각한 죄를 지은 때라도 회개하고 그 분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것을 시성(詩聖)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정죄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 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도다. (시편 103:8, 10)” 여호와께서 고집센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신 방법은, 그들의 죄절이나 죄의 정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하느님의 자비와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들에 대한 하느님의 정심은 노를 계속 품는 정신이 아니었다. (시편 30:6) 하느님께서 당신의 명령을 범한 사람들에게 분노를 나타내실 때에는 언제나 그들의 최상의 유익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신다. 하느님의 목적은 그들을 회개케 하시는데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벌하시지는 않는다. 충고의 인도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얼마동안 징계하신 것이다. 곡물의 종류에 따라 타작도구를 결정하듯이 하느님께서 개개인을 다루시는 방법도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적합한가에 따라 각각 다르다.

유다왕 므낫세는 우상숭배를 자행하였고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 그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마땅하였으나 하느님께서서는 므낫세에게 죄에 해당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앗수르 사람에게 의해 바빌론으로 잡혀가므로 므낫세는 회개하여 겸손하게 하느님의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므로 하느님께서서는 그에게 은총을 보여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므낫세가 징계로 인하여 참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은 그후의 행동으로 보아 분명하다. 그는 우상숭배를 타파하기를 시작했고 하느님의 계단을 만들고 그위에 제물을 바치기 시작했다. 므낫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느님을 섬길 것을 권려했다. 이런 예를 볼 때에, 하느님께서서는 회개하고 진전하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자비로운 아버지 같이 대하신다는 것이 분명하다.

하느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고 동정하심이 많으심으로 우리가 구할 때는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문제나 시련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고린토전서 10장 13)

하느님은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자비롭게 용서하실 것이니 우리는 안전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사랑과 이해성에 좋은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전주시 교동 1가 132-4)

요심이 (123) 김병오



□ 신간 안내 □

영혼의 일기 1,400원
당신은 왜 200원

성 바오로 서원 (T@3398)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역 중앙 시장동
(전화 ⑤ 4577)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세느의상실

최춘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삼성전주센터 앞
전화 ⑤ 6219

금성, 삼성, 대한 등남사
TV, 냉장고, 세탁기, 등

綜合電子

●팔달로변(舊 광주직행 앞)

김종환(원선시오) 전화2-3332

※ 신자들의 건강 센터 ※

※ 신자들의 집 ※

성심당 한약방

대지 사진관(2층)

이상범(필노리아노)

육교역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6544

※교우들의 집단장은!※

동양 페인트

현재 가격에서 10% 할인판매
(단 교우에 한함)

전주 뇌병원 옆

전화 ⑤2765·5986

드레스 빌러드림

미미 예식장

미미 사진관.제과소

남문 옆 ⑤3915)

유영문(가에파노)

김민주(가타리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축 김기수 부제 서품식 ☆ 12월 3일 중앙 천주교회에서. 많은 교우분들의 기도와 참여를 바랍니다.

- 1. 국군 장병 위문금, 위문품 위문편지 보내기 운동. 197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접수> 12월 10일까지, 전주교구청에 <교녀는 몇> 교구내 군중신부님들께 : 교경훈 신부, 성민호 신부, 서용복 신부, 이수현신부, 김병운신부
2. 특별헌금 전액 교구청 납부 추계 주교회의에서 재 확인. 7주일 <군인 주일, 전교, 평신도, 교황, 출판물, 구라, 성소주일>의 특별 헌금을 교구청에 전액 납부를 추계 주교회의에서 다시 재확인된 바 각 본당에서의 많은 협력을 바랍니다.
3. 교구청 전화번호 및 주소 변경 안내 교구청 : 3801 (주교님 전용) 3201, 35098 가톨릭 센터 3498 가톨릭 여학생관 3955 중앙 천주교회 3651 (사제관) 3874 (사무실) 성 바오로서원 3398 <교구청 주소> 520 천주시 서노송동 560의 6번지
4. 전라 Cell 공개 : 1975년 11월 30일, 중앙천주교회에서. 가톨릭 중·고등학생을 위하여 시범공개 Cell을 갖고져 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5. 오늘 주일은 "현대 사목현장" 교육의 날입니다. 이대권 신부 노송동, 김환철 신부 복자, 김중걸 신부 덕진, 한봉섭 신부 중앙, 김동준 신부 전동, 박종근 신부 서학동.
6. 4지구 신부 전체회의 : 전동에서 12월 1일 10시에 갖겠습니다. (보좌신부님들까지)



(중앙)

전화 3651 주임 신부 이대권 권준용 3874 보좌 신부 김동성 사도 회장 이상홍

- 1. 방지거 삼회 : 12월 1일 오후 2시
2.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3. 성심 부녀회 : 12월 5일 <금> 어머니 미사후
4. 꾸리아 월례회 : 다음주
5. 미사시간 변경 : 12월 1일부터 <주일> 오전 7시 오후 7시 <평일> 오전 7시, 오후 7시
6. 교무금 신일 : 다음주일까지 왕로토록, ◎ 금주 마당 포장 회사용 ◎ 상가 염관상 3,000원 ◎ 익산 농민 나환자촌 공소 건립비 ◎ 5,000원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합승천 사도 회장 조해철

- 1. 애령회 정기총회 : 오늘 공식 미사후
2.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3.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박남태 : 10,000원 주계 : 10,000원 누계 : 4,193,627원
4. 새 성당 의자 헌금에 감사드립니다. 주계 : 47,500원 누계 : 782,330원 ◎ 신축 성미 : 6되, 누계 235,4되

(덕진)

전화 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 축 박안드레아(본당)신부님 영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 추계 판공 성사 일정 <미산리> 12. 1~3일 <전당리> 3~6일, <내동리> 8~10 <동산촌> 10~11일
2. 본당 판공 성사 চাল고 중요 사항 ◎ 신자로서의 필수적 갖추어야 할 것 확인. ◎ 기도생활 충실 여부 확인함 ◎ 봉헌에 대한 인식 여부 확인함 ◎ 신심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확인
3. 성경 연구반 시간 안내 : 매 주일 오후 5시
4. 신용조합 임원회의 : 다음주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 1. 미사시간 변경 : 12월 7일부터 <주일> 오전 6시, 10시, 오후 4시 <어린이미사> <월> 새벽 6시 <화~토> 저녁 7시
2. 주일학교 주일 오후 3시 : 교사는 오후 2시
3. 사도회 상임위원회 : 12월 6일 <토> 오후 8시
4. 사도회 전체회의 : 12월 7일 공식 미사후
5. 반회합 : 일정 <2일> 16만 이인자 방장택 교사동2가 : 일부 <3일> 17만 김행자 맥 : 도토리골 <4일> 18만 서용현 맥 : 어응골 <5일> 19만 신경순 맥 : 어응골 ◎ 성경책, 반수첩 지급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박장춘

- 1. 판공 일정 : <8일 오전> 부제 공소 <오후> 서당리 <9일> 내정 <12일> 신흥 <13일> 신리,
2. 미사 시간 변경 : 12월 1일부터 <아침> 7시 <저녁> 7시
3. 애령회 : 다음주 공식 미사후
4. 사도회 월례회 : 다음주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김환철 보좌 신부 한봉섭 사도 회장 양윤모

- 1. 4개분과 활동 지침
① 선교분과 : 성탄 성야의 고요한 밤 행사. 각 단체 합창 발표회, 가동행렬
② 전례분과 : 성인 계복 착의 보미사, 전례해설
③ 봉사분과 : 위령자 가족 조의금 5,000원 (구빈자에게 8,000원)
④ 재정분과 : 교회 운영 100% 뒷바침. 교무금수납 100% 달성
2. 글라라 형제회 : 오늘 오후 1시 30분
3. 가정 봉헌 미사 : 서교동, 노송동 수, 토요일만 본당에서 저녁 미사.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Table with 8 columns: 지구, 본당, 소, 식, 봉헌금, 지구, 본당, 소, 식, 봉헌금. Rows include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with details on church activities and financial reports.